

G20 선진국과 부자에겐 빛 좋은 후진국과 서민에겐 개살구

G20 정상회의는 신자유주의 추진의 주범인 IMF, 세계은행, WTO를 더욱 강화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신자유주의가 추진된다는 것은 복지 재정을 깎고, 공공부문을 민영화해 공공요금을 인상하고, 기업효율성을 높인다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을 뜻한다. 제3세계 국가들에서는 하루에 1만 9천명의 어린이들이 죽는다. 보건 의료비로 쓸 수 있는 돈을 IMF 외채 상환에 쓰기 때문이다.

G20은 어떻게 생겨났나?

G20(Group of 20)은 G7, G8에 이은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회의다. 이 중 G20은 90년대 말에 발생한 한국, 말레이시아 등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선진국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G8에서 20개국의 재무장관 회의로 확대된 것이다.

이후 2008년 미국에서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한 경제위기가 세계로 확산되자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의 제안으로 G20을 정상회의로 격상했다. 이러한 전환에는 경제위기의 손실을 여러 국가들과 골고루 나누려는 선진국들의 의도와 자기 나라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도상국들을 이용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있었다.

지난 6월 캐나다 정상회의에서는 2013년까지 재정 적자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긴축 규모를 보면 경제위기의 대가를 치를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해진다. 학생들은 수업료를 더 많이 내야하고, 연금은 더욱 줄어들 것이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것이다.

G20 구성 국가(선진 8개국 + 신흥 12개국)

1. 프랑스	국내총생산(GDP) 세계6위	11. 브라질	국내총생산(GDP) 세계10위
2. 캐나다	국내총생산(GDP) 세계9위	12. 중국	국내총생산(GDP) 세계3위
3. 독일	국내총생산(GDP) 세계4위	13. 인도	국내총생산(GDP) 세계12위
4. 이탈리아	국내총생산(GDP) 세계7위	14. 인도네시아	국내총생산(GDP) 세계20위
5. 영국	국내총생산(GDP) 세계5위	15. 멕시코	국내총생산(GDP) 세계15위
6. 미국	국내총생산(GDP) 세계1위	16. 사우디아라비아	국내총생산(GDP) 세계25위
7. 일본	국내총생산(GDP) 세계2위	17.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내총생산(GDP) 세계30위
8. 러시아	국내총생산(GDP) 세계11위	18. 한국	국내총생산(GDP) 세계13위
9. 호주	국내총생산(GDP) 세계14위	19. 터키	국내총생산(GDP) 세계17위
10. 아르헨티나	국내총생산(GDP) 세계31위	20. 유럽연합(EU) 의정국	

G20을 반대하는 이유?

1. 경제 위기의 고통을 민중에게 전가하기

G20은 경제 위기의 비용을 애꿎은 민중에게 전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임금 삭감, 공공부문 일자리 축소, 복지예산 삭감 등의 긴축 재정부의 지출을 대폭 줄이는 것에 합의했다.

2. 악명 높은 IMF의 권한 강화

G20은 힘을 잃어가고 있던 IMF(세계구제금융)에게 막강한 금융 감독 권한을 주며 부활시켰다. IMF는 유럽연합의 가난한 회원국들인 라트비아·헝가리·루마니아 등에 '구제금융' 지원을 대가로 사회복지 삭감, 공무원 연금과 임금 삭감, 의료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 정리해고 요건 완화 등을 강요했다. 한국도 1997년 IMF에 구제 금융을 받은 대가로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대규모 실업이 양산됐다.

3. 지구 환경 파괴를 정당화

정부와 언론의 호들갑스러운 선전과 달리 G20 정상회의가 기후변화

문제를 진지하게 다룬 적은 한 번도 없다.

G20 런던 정상회의는 경기부양 예산 중 녹색투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한국(80.5퍼센트)을 뽑았는데 여기에는 '4대강 살리기'와 주변 정비 사업 예산이 포함돼 있다! 4대강 죽이기가 G20에서 친환경 투자로 둔갑한 것이다.

4. 철두철미하게 비민주적인 반노동자 회의체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되는 G20은 세계 200여개 국가의 수십억 명의 삶이 걸린 문제를 다루면서도 20개 국가의 정상들이 모여 결정하고, 이마저도 지극히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운영된다. G20은 '노동시장 개혁', 즉 해고 요건 완화와 비정규직 확대 등 노동유연화를 각국에 강력 주문한다. 캐나다 G20 정상회의 선언문을 통해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강력 주문했다.

5. 민중의 요구와 행동을 짓밟는 G20

지난 6월 캐나다에서는 G20정상회의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9백 명이 연행됐고 17명이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명박 정부는 아예 G20경호특별법을 만들고 군대까지 동원해 G20 정상회의에 항의하는 행동을 봉쇄할 태세다.

지난 5월부터는 G20을 핑계로 이주노동자를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면서 인종차별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길거리에서 피부색과 차림새만을 보고 외국인들을 마구잡이로 붙잡아 검문하고 수색하고 있다.



▲G20 정상회의 반대 서울 시위

- 2009년 4월 G20 런던 정상회의 때에는 노동조합, NGO, 극좌파, 환경운동가, 반전 활동가 등이 '사람이 최우선이다'라는 연합체를 결성해 3만~4만 명이 집결했다.
- 피츠버그에서는 "자본주의에는 희망이 없다"라는 팻말을 든 학생과 시민 수천 명이 행진했다.
- 프랑스에서는 6백만명의 노동자가 정부의 연금 삭감에 반대하며 9월 7일과 23일 대규모 총파업을 벌였다.
- 캐나다에서는 2만 5천 명이 모여 항의 시위를 벌였다.
- 한국에서도 G20에 항의하는 대중시위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 고장 난 자본주의에 맞서는 전 세계 민중에게 연대를 보내자.

알림

● G20규탄과 4대강 사업 반대 촛불문화제 10월 일정

매주 수요일 19시 - 서면 태화주디스 앞

매주 토요일 18시~19시 - 선전전, 19시 - 촛불문화제

